

# 네이버에 노동조합 결성, IT업계 노조설립 '신호탄'

8 노동과세계 안우혁 | © 승인 2018.04.02 15:11

국내 최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NAVER)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학식품노조)은 네이버와 계열사 노동자들이 화학식품노조에 가입해 네이버지회를 결성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 홈페이지 화면. '함께 행동하여 네이버를 깨끗하게 성장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네이버지회는 이날 직원들에게 선언문과 노동조합 가입 방법을 메일로 전했다. 노조 결성을 알린 지 30분 만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었고, 이날 오후 네시 기준으로 4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활동 목표로 △사회의 신뢰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네이버를 만들 것, △투명한 의사 결정 및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것, △열정페이라는 이름 아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이티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연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회의 설립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됐다. 노조의 필요성을 느낀 직원들이 익명채팅으로 의견을 모았고 올해 초 정의당 노동상담센터 '비상구'에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7명이 화학섬유식품노조에 가입해 지회를 설립했다.

네이버 법인을 포함해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네이버웹툰, 네이버랩스, 라인플러스, 네이버아이엔에스 등 네이버의 자회사 및 계열사 사원들이 네이버지회의 가입 대상이다. 현재 노조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아이디를 개설해 노동조합 가입 신청과 문의를 받고 있다.

지회는 선언문에서 “네이버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출발은 노동조합입니다. 지금까지 IT업계는 노동조합의 불모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IT 업계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노동조합 설립 취지를 밝혔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